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업무친화적' 기록관리 방향성 분석

A Critical Approach to 'Business-Friendly' Record Management In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김 명 훈*

Myoung-Hun Kim

차 례

- | | |
|-----------------------------|--------|
| 1. 서 론 | 4. 결 론 |
| 2. 전자기록의 특성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 | • 참고문헌 |
| 3. 전자기록 환경과 업무·기록·기록 관리의 통합 | |

초 록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한 단면으로서, '업무친화적' 기록 관리의 향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전자기록 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가 지니게 되는 의미 및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종래의 라이프사이클 체제하에서 간과되어 왔던 현용 기록관리의 의의 및 역할을 전자기록 환경에서 재정립함과 더불어, 나아가 기록관리와 정보관리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키 워 드

전자기록, 전자기록 환경, 기록, 기록관리, 업무, 증거, 정보, 라이프사이클, 레코드 컨티뉴엄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강사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Archives and Inform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jmhwddhappy@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7년 11월 8일

• 게재확정일자 : 2007년 12월 10일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direction of 'business-Friendly' record management in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which means paradigm shift in record management. In the first plac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terrelationship of business, records and record management through natures of electronic records, and analyzes direction of purposes and roles of record management in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After all, this article rebuilds a significance and roles of record management in active stage, and provides theoretical bases for close relation between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KEYWORD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Record, Archive, Record Management, Business, Evidence, Information, Life-Cycle, Records Continuum

1. 서론

20세기 말 불어 닥친 전자기록 혁명은 기존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록의 개념 및 속성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으며 생산에서부터 최종 보존 및 활용에 이르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역시 재정립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은 조직 업무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이루어진 조직 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는 곧 기록 및 기록관리의 목적·활용방면 등의 변화를 수반케 하고 있다(AIIM International Europe, DLM-Forum 2002, 8).

기록은 관리되는 객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형적으로 기록은 조직 내지 개인의 활동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활동이 수행되는 총체적 사회 환경과의 상호 관계 속에 그 의미 및 목적이 발현된다. 지난 세기에 걸쳐 사회의 법·문화·기술·철학 등의 총체적 변혁 그리고 기록 생산조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며 기록학의 사조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변모해왔다.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형성된 기록학적 사고는 이러한 수많은 내적 외적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Terry Cook은 향후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학은 총체적 사회 내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고 그 실상을 파악함과 더불어 이들 변화상에 대응하는 이론 및 방법론의 부단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한다(Cook 1997, 20).

이는 곧 기록학은 단순히 기록화된 대상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 한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기록화된 대상을 관리·보존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진전에 대응하여 관리·보존상의 기술 및 방식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당대 사회에서의 기록이 지닌 의미 및 역할, 기록이 생성되는 사회적 환경들에 대한 조망과 더불어 여기에서의 기록관리가 지닌 함의 및 역할 인식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한 단면으로서 ‘업무친화적’ 기록관리의 향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업무친화적’ 기록관리란 조직의 영위 및 업무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일익을 담당하는 기록관리를 의미한다. 물론 기록은 업무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과거 종이기록 환경에서도 현용 내지 업무참고적 가치란 개념으로 부분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종래의 라이프사이클 체제하에서는 주로 비현용 단계의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현용 단계에서의 업무와 기록관리의 친연관계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Yusof & Chell 2002, 55).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 논의로 되어왔던 현용기록관리의 의미 및 역할을 전자기록 환경에서 재정립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업무와 기록관리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며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서구 학계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업무와 기록관리의 통합을 기반으로 맥락을 지닌 기록의 획득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며(Hofman 1998; Bearman 1994; Mckemmish 1999), 다른 하나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는 정보 및 지식관리와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들이다(Sutcliffe 2003; Duffy 2001; Myburgh 2004; Delmas 2001; Pemberton 2004). 하지만 전자에서는 주로 전자기록의 맥락 확보를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업무와 기록관리의 상관관계에 접근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기록 역시 조직의 지식정보 자원으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이론적 기반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업무와 기록관리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연구성고가 제출되었다. 김익한(2005)은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을 ‘업무 과정에 기축한 정보’로 해석하며 업무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기록과 정보, 지식의 관계성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자기록 환경에서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가 지니는 상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증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자기록 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가 지니게 되는 의미 및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한다. 전자기록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해결책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것임을 염두에 둘 때(O'Shea 1997, 251-257), 본 연구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향후 기록관리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전자기록의 특성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 및 기록관리가 지닌 의미 및 역할은 시대 및 환경에 부응하며 부단히 변해왔다. 20세기 말부터 불어 닥친 전자기록 환경은 그동안 19세기 실증주의에 뿌리를 둔 기록의 정의를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하였으며 20세기 이후 관료제의 진전 및 기록을 통한 업무처리의 보편화 속에 등장한 기록의 정의 역시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다(Cook 2001, 1).

내용-구조-맥락이 각기 분리되어 존재하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서 전자기록이 지닌 근본 속성은 기록을 데이터 및 정보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 짓게 하였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는 기록을 업무내역을 수록한 내용으로서 보다는 업무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파악하는 관점이다(Cook 2001, 19). 즉 기록은 업무행위를 고스란히 반영한 증거를 제공함과 아울러 생산 연원이 되는 기능 및 활동과 부단히 연계되어야 함을 강

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성 및 행위와의 연계를 통한 맥락성은 기타 유형의 정보자료와 기록을 구분하는 핵심으로, 이는 나아가 기록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oberts 1998).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은 업무의 행위 내역에 대한 '증거(evidence)'로서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비단 기록학 영역에서 증거란 개념은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새롭게 생성된 것은 아니다. 기록은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사실 내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의미는 예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우선 Jenkinson이 말하는 증거 개념은 기록의 본질에 대한 르네상스적 회귀에 그 출발점을 둔다. 고대 로마법에 근거한 관념인 '영속적 기억성(perpetual memory)'과 '공적 신뢰성(public faith)'으로 대표되는 아카이브의 본질은 가치의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Duranti 1994, 331-334). 일회성 기록 내지 사본 등을 제외한 보존기록물은 위의 두 관념에 기초하여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며 따라서 특정 가치에 귀속된 선별행위는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된다. 각각의 기록물에 대한 특정 기준의 가치 판단은 내용적 사실성과 공신력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생산목적 본연의 고유성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 위에 Jenkinson은 문서가 아카이브(archive)로 전환되는 주요 관건을 공식적 보존내력(official custody)으로 규정하면

서 아카이브를 공적 활동으로 생산·수집되어 공신력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보존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Jenkinson 1922, 9-11). 이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온 것에 기인한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authenticity) 및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그리고 인위적 수집이 아닌 공적 활동 중 자연적으로 축적된다는 자연성 및 전체 기록물과의 상호연관성이란 아카이브의 본질적 속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Jenkinson 1922, 4, 8-9, 151-152). 바로 여기서 생산 당시의 있는 그대로를 강조하는 Jenkinson의 증거 개념이 도출된다.

Schellenberg 역시 기록물의 가치 가운데 하나로 증거 개념을 언급하였지만 Jenkinson의 증거 개념과는 상이하다(Cook 1997, 27). Schellenberg는 현용 목적이 소멸된 이후 새롭게 생성되는 가치 준거로 증거적 가치(evidential value)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록의 범주를 크게 정책 기록, 업무수행 기록, 조직운영 기록, 간행홍보 기록이란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Schellenderg 2005, 34-36). 그의 정의에 의하면 증거적 가치는 '특정 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증거 때문에 부여되는 가치'이다(Schellenderg 2005, 31-37). 즉,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해당 기관의 조직 및 기능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내역과 함께 기록물 내용의 중요도 평가 시 전후 맥락의 파악에 일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정보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곧 사안의

종결 후 비현용단계에서의 개별적 내용 선별에 준거가 되는 가치 기준 중의 하나로 기록물이 생산된 본원적 목적과는 상관없는 참고 및 연구 목적을 위한 결과로서의 증거였다(Lybeck 2000, 17-19).

이에 반해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증거 개념은 이와 차원을 달리 한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증거는 해당 기관의 조직 및 기능 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조 및 맥락과 상호 연관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생산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비현용단계의 결과로서가 아닌, 기록물의 생산 이전단계부터 구조적으로 포착되어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Bearman 1994, 285).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의 본성으로 내용보다는 이러한 증거가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전자기록 환경의 상황에서 연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전자기록의 특성 측면이다. 전자기록은 개인 내지 단체의 공식적 업무과정 중에 생산·접수된, 내용-맥락-구조로 이루어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화된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맥락(context)은 전자기록이 생산된 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기록에 내재된 맥락적 정보와 더불어 단일 품내 여타 기록물과의 관련성 및 전자기록이 생산된 활동 내지 업무 내역을 포함한다(ICA 1996, 25). 구조(structure)는 내용의 외형 및 서식·폰트·표·그래프·차트 등과 같은 배열상태와 더불어, 시스템 내 기록물 간의 연계관계

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기록물 내용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적 정보와 함께 기록물 간의 연계관계를 관리하는 플랫폼·하드웨어 등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정보 역시 포함된다(IRMT, ICA 2005, 24-25).

이러한 전자기록은 물리적 실체가 부재한 이유로 인해 내용-구조-맥락은 각기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예전의 종이기록 환경에서 기록물의 내용과 구조는 종이라는 물리적 매체에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 맥락은 생산 이후의 출처주의 및 원질서원칙 적용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였다(ICA 1996, 26). 하지만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 요소의 분리로 인해, 구조 및 맥락에 대한 사전적 정보의 파악 없이는 기록물로서의 본원적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된다(Bailey 1989-1990, 183). 이러한 점에서 전자기록은 기록에 수록된 내용에 우선하여 생산연원이 되는 배경의 파악이 필수적 과제로 부상되며 업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유통되는 수많은 정보객체들 가운데 '맥락을 함유한 정보'로서 그 개념을 정립해왔다(Cox 2001, 4-5). 이는 곧 업무행위 내역을 그대로 반영한 증거의 획득이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의 최우선 지향점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기록 실체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시각은 전자기록 대상을 논리적 객체(logical object)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전자기록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가상공간에서 존재하고 활용되는 관계상, 물리적 통제의 필요성은 없거

나 있다 해도 그리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또한 네트워크망에서 시공을 넘나들며 조직구조를 가로지르는 생산·유통·활용은 전자기록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기록은 물리적 실체로서 보다는 논리적 실체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자기록의 내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지적 통제가 관리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Hofman 1998). 이와 더불어 전자기록의 물리적 보존은 더 이상 보존전략상의 근본 요소가 아니며, 업무 및 사회에 계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한 식별·통제·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Upward 1998). 결국 전자기록이 지닌 물리적 객체로서의 성격 소실은 조직 행위의 결과로서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필요케 하였다(McKemmish 1994a, 200-201).

전자기록이 생성되는 메커니즘 역시 증거의 획득을 강조케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전자정보 혁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드라이브 속에 관료제에 기반을 두어왔던 종래의 계층적 위계질서는 해체되고, 다원적 목표 수행을 위해 조직 및 기능 구조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수평적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권기현 1999, 85-110). 또한 기존의 조직에서 나타났던 조직 간, 부서 간의 명확한 경계는 사라지고 다자간의 연계 속에 기능 및 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기록물이 생산되는 구조 및 맥락은 예전과 달리 고도의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다(김명훈

2003a, 217). 특히 부서별로 특정 기능만을 전담케 했던 분업화 방식에서 팀제식의 과정 중심적 업무패턴으로의 변모는 기록물 자체와 기록물이 생성된 연원을 서로 이탈시켰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가중된다.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가치 매트릭스적인 가상의 공간에 다양한 기능들 간의 유기적 연계구조 속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전자적 객체를 생성시키며, 아울러 네트워크화 된 다자간의 연계망 속에 기록물의 맥락 파악은 예전과 같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김명훈 2005, 95-96).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단일 생산자를 정점으로 한 종래 기록물의 계층적 구조가 와해되며, 단일 출처를 기반으로 했던 기록물의 통합성 및 기록물 간의 상호연계성 역시 그 의미가 축소된다. 아울러 기록물과 출처 간의 일대일 함수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관계로 인해 기록물의 생산맥락 파악은 더욱더 난해해지고 있다(김명훈 2003a, 217-218). 기실 종이기록 환경에 토대를 둔 기록생성 메커니즘은 베버식 관료제로부터 기원하는 다음의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직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한 업무기능 및 처리절차의 유기적 관계가 안정화된 상황 속에, 문서화되어야 할 모든 행위들은 적절히 문서화되고 또한 기록으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실제 현실에서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그것이다(Horsman 2000, 60). 그러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수많은 행위들이 시공을 넘나드는 처

리과정 중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기록의 이해에 필수적인 구조적, 맥락적 정보 역시 충분히 포착키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Bearman 1994, 284-285). 아울러 전자기록은 복잡하고 다원적인 업무 프로세스 하에 생성되는 관계상, 이러한 생산맥락의 포착 없이는 해당 기록물이 지닌 본원적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법령·규정·업무기능 및 처리절차 등 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환경적 배경정보를 포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Menne-Haritz 1994, 534-536). 결국 이와 같은 조류 속에 기록물의 내용이 아닌 업무행위를 정확히 포착한 증거의 획득은 기록관리 상의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로 자리하게 되었다(Bearman 1995, 391-40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업무의 행위내역을 그대로 반영한 증거로서의 기록 확보가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 상의 근본 전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자기록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정보 객체들 가운데 맥락을 지닌 정보로서 그 영역을 구분지어 왔다. 과거에 대한 실제로서의 증거 그 자체만을 주목하는 법률 내지 역사 영역과 달리, 기록학 영역에서는 증거의 확보와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존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왔다(Brothman 2002, 311-342). 이러한 증거의 확보 및 유지·보존을 위해 전자기록 환경에서 새로이 부상된 전략은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의 친연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3. 전자기록 환경과 업무·기록·기록 관리의 통합

3.1 종이기록 환경에서의 업무와 기록 간의 관계

기록은 업무 내지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기록과 업무와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다. 그동안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조직이나 개인의 특정 활동과정에서 생산되어 해당 활동에 대한 근거로서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무와 기록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업무와 기록의 관계는 도서 및 기타 정보와 기록을 구분 짓게 하는 '맥락'(context)을 형성하여 기록 간의 연계관계는 물론 해당 기록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해왔다(Duranti, Eastwood and MacNeil, 2002, 18-19).

업무와 기록을 연계시키는 것은 근대 이후 조직 운영 메커니즘에서 연유된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은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정 구조 및 구성원을 지닌 사회단위로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 내 부서들에 일정 권한 및 업무를 부여해 전업화시키며 이러한 부서들은 명령의 통일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정점으로 구조화된다(유훈 1991, 276-280). 이와 같은 조직의 속성에서 업무와 기록을 연계시키는 전형적 발상이 도출된다. 우선 기록의 정의로 '특정 조직의 공적 업무활동 과정 중에 생산·접수'된다

는 점에서 그 범위가 명료하게 한정된다. 기록물은 생산자의 활동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생산·축적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함과 아울러 특정 행위자의 활동 내역을 대표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산된 기록물 역시 단일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성 및 유기성이 형성되며, 조직 내의 위계화 된 계층구조는 기록물의 계층적 질서를 창출시킨다. 아울러 특정 업무기능의 전업화에 따른 부서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은 생산자와 기록물 간의 일대 일 연계관계를 형성시키게 된다(Wang Rong-sheng, Wang Yu-sheng 1996, 23-24).

이러한 업무와 기록 간의 연계관계는 기록학 이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기록물은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록물의 생산자는 곧 출처로 등치되었고, 기록물은 특정 활동과정 중에 생산·축적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업무맥락을 반영한 출처는 기록물의 통합성, 유기성 창출 및 생산연원의 근원으로 인식되어 왔다(김명훈 2003b, 6-7). 또한 업무 과정 중에 축적된 기록물의 파일링 질서는 시리즈 내 기능적 관련성을 기반으로 있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질서 존중의 원칙으로 발전해 왔다(Schellenberg 1965, 100-105).

하지만 종이기록 환경에서 업무와 기록 간의 관계는 전자기록 환경 하의 관계와는 질적 차이를 지닌다. 업무와 기록 간의 연계를 통해 기록물의 생산맥락 및 상호 유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만 그 적용 시점 및 연계의 궁극적 목적 면에서 근원적인 차이를 지닌다. 전자가 비현용단계에서 분류 논리로 적용되어 2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이용을 위해 맥락을 사후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라면, 후자는 생산 이전 단계에서 분류의 기반이 되어 사전적으로 맥락을 확보함과 더불어 기록이 지닌 1차적 가치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종이기록 환경 하의 전형적인 기록관리 모형에서는 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의 최종 단계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즉 기록이 더 이상 현재의 업무와 관련 없을 시 기록보존소에 이관하게 되면 본래적 가치가 소멸된 '생명이 다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분류·기술·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으로 인식되었다(McKemish 1994b). 20세기 초반 미국 국립기록청에서 개발한 라이프사이클 및 이와 연동한 기록물의 가치 구분은 이러한 경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물의 가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기록관리 단계의 이동 속에 기록물의 생산 본래적 목적이 소멸된 후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토대를 둔 실제 3단계 기록관리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비현용단계의 새로운 가치, 즉 Schellenberg가 개념화한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의 선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출처주의 및 원질서원칙은 역사적·연구적 내지 기타 제3의 목적으로 한 기록물의 활용 시 그 본래적 생산맥락을 남기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Schellenberg 2002, 204-210).

이처럼 라이프사이클이 내포하는 기록의 '탄생'으로부터 '폐기 내지 재탄생'에 이르는 단선형의 아날로그식 사고는 당시 미국 국립기록청이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20세기 이후 국가 행정규모의 비대화 및 세계대전에 따른 기록물의 양적 증가, 그리고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에 따른 권력 집중의 시류 속에 국립기록청을 형성시켰으며, 소규모의 분산적 형태로 이루어져왔던 이전의 관행으로는 불가능했던 대량의 기록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가치평가 방식은 평가를 통해 영구보존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한 다음 나머지를 제거하려는 당시 미국 국립기록청의 행정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Evans 1967, 46). 이와 같은 국립기록청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 중인 현용단계에서의 기록관리는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니지 않으며 영구기록의 보존이라는 국립기록청이 지닌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니지 않게 된다(Atherton 1985-1986, 45-46).

이러한 점에서 라이프사이클에 토대를 둔 기록관리체제는 업무 부서에서의 현용기록관리와 보존단계에서의 아카이브 관리를 양분시켜 왔다. 여기서 연유하여 기록물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지닌 대상은 '아카이브'로 별도 규정되며 이러한 아카이브를 선별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시키는 것이 기록관리전문직의 주요 책무로 자리해왔다(Schellenberg

2002, 17-18). 업무의 결과로서 산출된 수많은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을 기록보존소에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주요 주안점이었다. 그동안 라이프사이클 가운데 현용 단계의 생산·유지 및 활용 영역 보다는 아카이브 단계의 평가·기술·보존·활용 등에 연구가 집중된 것도, 또한 기록물의 평가 역시 2차적 가치의 선별에 집중된 점도 위와 같은 경향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용기록관리는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아카이브에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용기록관리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었다(Atherton 1985-1986, 44). 따라서 업무와 기록 간의 관계는 업무의 결과로 주어진 기록을 향후의 이용을 위해 기록물이 생산된 맥락을 복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비현용단계에서의 출처주의 및 원질서원칙을 통한 분류를 통해 구현되었다(Schellenberg 2002, 204-210). 또한 라이프사이클 하의 단절적인 기록관리체제에서 행정부서에서의 현용 목적과 관련된 업무와 기록관리 간의 관계 역시 주목받지 못하였다(Taylor 1983, 189).

3.2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업무·기록·기록관리의 친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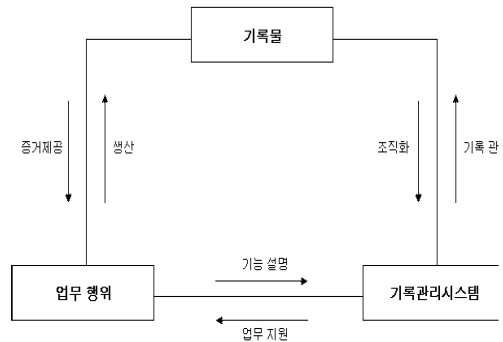
전자기록 환경에서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

간의 관계는 이와 차원을 달리한다. 우선 기록의 생산연원이라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행위는 조직의 업무 중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되며 모든 공식적 업무처리는 문서를 통해 수행된다는 근대 관료제 정착 이후의 문서주의를 기반으로 행위의 수행 과정에서 행위와 밀접한 연계관계를 형성하며 기록이 생산되어 왔다(Duranti, Eastwood and MacNeil 2002, 17). 이러한 배경에서 행위는 기록물이 생성된 맥락을 밝혀주는 근원으로 자리해왔고 생산 맥락의 확보를 위해 전통적으로 조직구조에 기반을 둔 출처주의 및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통해 기록과 행위를 연계시켜 왔다. 하지만 전자기록의 경우 특정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화된 기능 및 절차에 따라 생산됨과 아울러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논리적 실체인 상황에서 행위 중에 생산된 기록물을 해당 행위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전자기록의 경우 업무와 기록의 친연관계 형성이 필수적 사항이 된다.

한편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용과 구조, 맥락이 별도로 존재하는 수많은 디지털 정보들이 생성되는 상황에서, 기록은 행위의 내역을 고스란히 반영한 '맥락을 지닌 정보'로서 여타 정보들과 구분된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 및 정보, 문서들이 모두 기록은 아니라는 점에서(Duranti, Eastwood and MacNeil 2002, 2-3) 기록은 생산·접수되고

활용된 업무상의 맥락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며 아울러 기록의 구조 및 형식 그리고 해당 기록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원래 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ISO 15489-1, 7.2.1). 수없이 생성·유통되는 디지털 객체 가운데 바로 위와 같은 속성을 지닌 대상이 업무의 내역을 반영한 증거로서 기록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 획득되게 된다.

단, 이러한 획득에는 사전적인 전제가 놓여 있다. 즉 업무의 행위 내역을 반영하는 증거를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된 기록은 업무의 행위 내역에 대한 증거라는 점에서 업무 자체는 물론 업무를 수행한 개인 및 조직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근거가 되며, 또한 업무는 조직을 둘러싼 내외부 법규 환경에 기반을 두고 수행된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기록은 법규 환경에 대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근거로서 기능하게 된다(Bearman 1994, 57-61).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기록관리시스템은, 과거 종이기록 환경에서처럼 업무의 결과물로 주어진 대상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설명책임 및 컴플라이언스에 필요한 증거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으로 획득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필연적인 친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1〉 업무-기록-기록관리 관계 1

출처) Bearman David, 1994, *Electronic Evident Strategies for Managing Records Contemporary Organizations*,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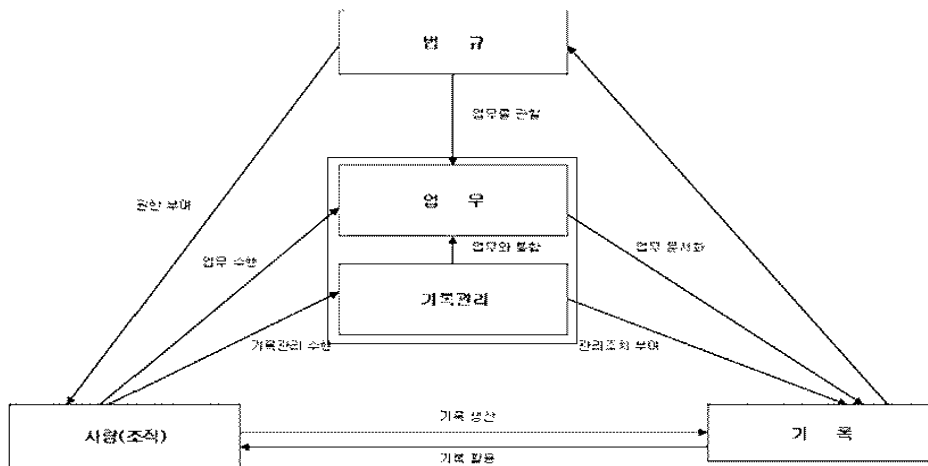
업무와 기록의 친연관계가 〈그림 1〉과 같은 논리에 따라 형성되었다면 기록관리는 이러한 친연관계를 기반으로 업무 행위를 반영한 거의 획득이 필수적이 된다. 일반적으로 종 기록 환경에서는 원질서원칙을 통해 업무 맥락을 함유한 기록물의 확보가 가능하였(Bearman 1994, 37). 기록물은 업무 수행 중 자연적으로 축적된다는 논리 하에 온가 실제 처리된 질서를 반영하여 물리적인 정리함으로써 업무와 기록 간의 본연적 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이 개별적 객체로 존재하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업무 자체 및 전산시스템의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업무와 기록 간의 관계 파악이 미난해해진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어떠한 맥락에서 생산·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가 되며 무 행위를 반영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 행위와 기록관리를 연계시켜야 하는 등

성이 도출되게 된다(Bearman 1994, 35-37).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 간의 관계는 위의 그림과 같은 상호연관성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업무와 기록관리 간의 친연관계는 기록관리를 정점으로 한 엔티티들을 모형화 시킨 <그림 2>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2>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를 둘러싸고 법규·조직·기록·업무가 상호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법규는 외부 법규와 내부 법규로 양분할 수 있다. 외부 법규는 법·규정·표준·직업윤리·기록관리 법령·사회적 관습 등이며 내부 법규는 조직의 정책·행정규칙·내부 규정·기록관리 매뉴얼·조직문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는 조직의 운영 및 업무가 수행되는 맥락과 함께 대내외의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제공함과 아울러 기록관리가 수행되는 방식 역시 권장하

게 된다(McKemmish et al. 1999, 13).

조직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내지 규정·표준·최선의 실무관행·직업윤리 등의 사회적·조직적 맥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여기서 업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이 영위되는 구체적 행위의 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McKemmish et al. 1999, 14). 그리고 이러한 업무 수행 시 법규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업무에 대한 설명책임을 아울러 부여받게 되며 여기서 설명책임은 기록을 통해 구현되게 된다. 따라서 조직 및 업무자는 설명책임 확보를 위해 업무의 수행과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기록을 생산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된다. 기록은 조직 및 업무자에게 이양된 권한의 수행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도구이다. 또한 업무의 실제 처리내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해당 업무상의 기능



<그림 2> 업무-기록-기록관리 관계 2

출처) McKemmish Sue et al. 1999. "Describing Records in Context in the Continuum: The 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chema ". Archivaria 48: 12~13 fig 2, 3을 재구성.

및 활동에 대한 진본성·신뢰성·무결성·가용성을 지닌 증거로서 집합적 기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아울러 조직 및 업무자가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ISO 15489-1, 7.2).

〈그림 2〉에 제시된 엔티티들은 자체 내의 연계구조 및 상호간의 연계관계를 지니게 된다. 우선 업무 엔티티는 처리행위-활동-기능으로, 조직 엔티티는 업무자-업무단위-조직으로 그리고 기록 엔티티는 개별기록-기록물 집합-기록물 전체로 자체 내의 위계구조와 함께 위계에 따른 자체 내의 연계관계를 함유하고 있다(McKemmish et al. 1999, 15). 또한 이러한 각각의 엔티티들은 상호 간의 연계관계 역시 형성한다. 조직과 업무, 업무와 기록 그리고 기록과 조직은 상호 연계관계를 형성하며 아울러 업무와 기록관리의 통합관계를 통해 조직-업무-기록은 다원적인 연계관계를 창출하여 기록의 생산맥락을 제공해준다(McKemmish et al. 1999, 15-7). 그리고 나아가 업무와 기록물 간의 일대 일 관계를 넘어 조직-업무-기록 간의 다원적 연계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원론적 출처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조직의 다변화 및 복잡화 문제, 생산자와 기록물 간의 다대 일, 다대 다 관계 문제를 해결해준다(김명훈 2003b, 67).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엔티티들 간의 연계관계는 업무와 기록관리의 통합을 정점으로 출발한다는 점이다. 기록은 조직 및 조직의 업무자가 설명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또한 조직 및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내외부 법규 및 지침 등에 컴플라이언스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대로 내용-구조-맥락이 분리된 전자기록의 속성 및 복잡한 전자기록의 생성 메커니즘 속에 증거의 확보는 용이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증거는 업무 내역을 고스란히 반영한 기록이며 기록관리는 업무 행위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화된 정보 형태로 획득·유지할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ISO 15489-1, 7.1-7.2). 이와 같은 논지에서 업무와 기록관리는 직접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업무와 기록관리를 통합시킬 필요성이 도출되게 된다.

3.3 컨티뉴엄 사고와 업무친화적 기록관리 향방

기본적으로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정보시스템은 역사자료의 보존 및 후대 전송을 위해서가 아닌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설계되어가동된다(Bearman, Hedstrom 1993, 85). 이러한 업무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을 획득해 관리하는 기록관리시스템 역시 증거로서의 기록을 생산·저장·접근·활용케 하는 특정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특화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정보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상에 필요한 증거 및 정보 목적을 위해 기록물을 생산·저장함과 아

올려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아키비스트나 기타 연구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기록 생산자, 즉 업무자를 위한 것이라는 발상이 도출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정보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은 생산 조직의 업무 처리 및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적화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Bearman 1994, 36).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이러한 사고 전환은 기록의 개념을 재정립함과 더불어 기록관리가 수행해 온 전형적인 역할을 재조명시킨다. 이러한 면에서 기존의 라이프사이클을 대체한 '컨티뉴엄(continuum)' 이론은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의 친연관계를 강화시키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된 Atherton의 컨티뉴엄 사고에서는 기록의 생산자 및 이용자에 대한 활용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다(Atherton 1985-1986, 49-51). 라이프사이클에 기반을 둔 현용단계의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단계의 기록관리 간의 단절적 체제를 탈피하고 기록의 활용을 중심으로 모든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통합적 기록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은 미래의 연구자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닌 행정 과정에서 행정적 목적을 위해 생산된다. 따라서 기록의 가치는 본디 행정상의 활용과 관련된 것임을 염두에 둘 때 Atherton이 제시한 컨티뉴엄의 핵심은 '행정적 효율성'에서 기록관리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Atherton

1985-1986, 49).

1990년대 호주에서 정립된 컨티뉴엄 이론은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사고라 할 수 있다(McKemmish 2001, 333). 호주 기록관리 표준인 AS 4390에서는 컨티뉴엄을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기록관리시스템의 설계에서는 그 이전부터) 아카이브로서의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관리체계"로 정의한다(Flynn 2001, 80). 여기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관리체계'란 말은 라이프사이클의 레코드 단계와 아카이브 단계의 구분 및 각 관리 단계가 각기 분리된 것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으며 아울러 라이프사이클은 기록의 생성 시점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컨티뉴엄은 '기록관리 시스템의 설계', 즉 기록의 생산 이전시점부터 기록관리의 출발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컨티뉴엄 이론은 전자기록 환경과 더불어 기록의 생산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메커니즘 및 업무 수행방식의 변화 속에 기존의 기록관리 이론 및 방법론을 근원적으로 재고려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McKemmish 1998) 기록이 개인 및 조직·사회에 가치를 지니는 한 이를 식별·통제·접근·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Upward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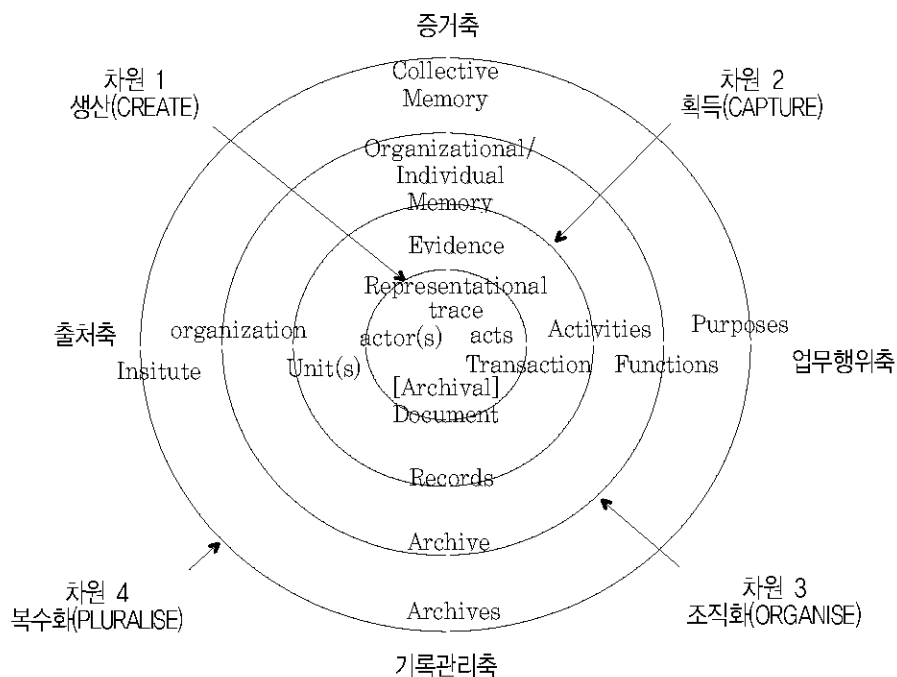
컨티뉴엄에서는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 축선 및 4개 차원을 통해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도해화 시킨다.¹⁾ 우선 증거 축(evidential axis)은 행위를 표현한 흔적·증거·개인 내지 단체의 기억 및 집합적 기억으로서 기록이 지니는 역할을 나타낸다.

이 축은 행위·관계 및 이와 연관된 개인·단체에 대한 가치추가(value-added) 정보의 근원으로서, 업무 및 사회적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집단적·사회적·문화적 기억으로서 그리고 개인·단체·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근저로서 총체적 사회에서 갖게 되는 기록이 지닌 활용 의미를 나타낸다.

업무행위 축(transactionality axis)은 기록을 생산하게 한 업무 기능과 관련된 축으로, 기록을 행위와 연계시키는 기능적 출처 역할을

담당한다. 행위(act)는 업무 내지 사회적 활동(activity)을 형성하게 되고 활동은 업무 내지 사회적 기능(function)을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기능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목적(purpose)으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기록물에 기록관리 상의 '활동 기반'(activity based) 맥락을 부여해 줌과 아울러 이러한 행위의 층위와 연계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자리하게 된다.

일정 서식을 통해 생성된 문서 및 증거로서 획득된 기록 그리고 개인 내지 단체의 아카이



〈그림 3〉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

출처) Upward, Frank,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Monash Univ.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fupp1.html>>

1) 이하의 내용은 Upward, Frank,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Monash Univ.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fupp1.html>>; Flynn, Sarah J. A, 2001. "The Records Continuum Model in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for Archival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2(1)을 정리.

브 및 사회 전체로 복수화된 아카이브즈로 구성된 기록관리 축(recordkeeping axis)은 인간의 행위 내역을 기록화한 매개수단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축은 문서가 생성되는 서식, 이러한 문서가 기록으로 획득되는 시스템 및 시공간에 기초한 일정 맥락을 기록물에 부여하게 되는 개인 내지 단체와 같은 권위체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처 축(identity axis)은 기록을 생산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낸다. 이 축은 행위자(actor), 단체 내지 사회적으로 권한이 용인된 권위체 내의 개인 내지 그룹인 단위(unit), 특정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 단체 내지 법인체인 조직(organization) 및 단체 내지 법인이체가 활동하게 되는 보다 넓은 사회적 범위인 제도(institution)로 구성되어 기록학에서의 출처의 소재를 표현함과 더불어 기록관리 상의 구조적 맥락을 부여해 주게 된다. 나아가 업무행위 축과 출처 축은 최근 날로 복잡해지는 기록의 맥락을 해명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컨티뉴엄에서는 4개의 차원을 통해 축선에서 표현된 기록 및 기록관리를 둘러싼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선 차원 1에서는 개인 내지 단체의 행위를 통해 그 행위를 표현하는 흔적(representational trace)으로서 문서를 생성시킨다. 이를 통해 차원 1에서는 업무행위와 연관된 문서를 획득함으로써 설명책임성 있는 행위를 확인함과 더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

거를 생산한다. 차원 2는 개인 내지 단체의 행위 결과인 문서가 조직적 활동 단위로 편입되는 단계로 조직의 필요(업무적, 법규적, 역사적 등)를 충족시키게 되는 기록물이 기능-활동-처리행위로 이어지는 조직 활동의 위계와 연동하여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 속에서 메타데이터 및 타기록과의 연계 관계 창출을 통해 기록의 맥락 및 증거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차원 3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 행위-활동-기능-목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행위와 업무행위를 문서화시킨 기록을 연계시켜 관리하게 되며 업무의 직접적 이용 범위를 넘어 기록을 조직 전체의 기억으로 확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차원 4에서 기록은 조직 차원을 넘어 총체적 사회제도 차원에서 집합적·사회적 기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국가적 범주의 기록관리시스템은 총체적 사회 및 사회 기능의 필요를 위해 활용되게 된다.

이와 같이 컨티뉴엄은 아이템 단위를 생성 시부터 행위의 맥락 내에 위치시킴과 아울러 이를 확대하여 전체로서의 사회적 맥락 내에 자리하게 하는 구도를 제공한다. 즉, 컨티뉴엄에서는 '문서의 생성-기록의 획득-아카이브의 조직화-아카이브즈의 복수화'로 확대되는 4개의 차원에 따라 맥락의 의미를 확대해 가게 된다. 생산 차원에서는 행위자나 처리행위 등 문서가 생성된 직접적인 맥락을, 획득 차원에서는 조직의 각 업무 단위 내에서 수행된 행위의 맥락과 연계시키며 조직화 차원에서는

조직 자체 내지 조직 내의 기능들이 행해진 맥락을 그리고 복수화 차원에서는 모든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차원의 목적을 연계시키게 된다. 이러한 차원은 단절적인 경계의 표현이 아니다. 하나의 축선 상에 존재하는 네 개의 엔티티가 각각 확장되는 특성을 지닌 것처럼 차원 또한 확장되는 프로세스를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해를 기반으로 한 컨티뉴엄의 논점은 우선 기록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전자기록이 지닌 물리적 객체로서의 성격 소실은 조직 행위의 결과로서 기록의 본성 및 증거로서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필요케 한다(McKemmish 1994a, 200-201). 기록의 내용 및 정보적 가치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기록의 정의를 거부하고 기록화된 정보에 대한 다차원적(pluralist) 견해를 채택하여 기록을 목적 및 기능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McKemmish 2001, 335-336).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의 개념은 업무처리적(transactural), 증거적 목적을 위한 활용 측면이 강조되며 기록이 생성되는 복합적 현실 속에서 기록이 지닌 다원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Upward 1996). 따라서 기록의 생산자인 조직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과 더불어 현재의 업무 및 조직에서 기록이 지닌 의미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컨티뉴엄 사고에서는 업무 행위 결과로서의 기록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업무 행위 및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한 활용을 위해 기록이 생산·관리되며(Flynn 2001, 81-85), 이

를 위해 기록관리를 업무 프로세스 및 목적과 통합시키게 된다(Upward 1996).

또한 컨티뉴엄에서 증거로서의 기록이 지닌 속성은 업무와 기록관리 간의 친연성을 강화시킨다. 이분법적 가치 논리에 따라 현용단계의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단계의 기록관리가 서로 별개로 존재했던 종래의 라이프사이클 체제에서는 기록관리의 주목적이 생산 본래의 가치가 소멸된 이후의 2차적 가치를 지닌 대상의 선별에 주안점을 두어 왔고 이러한 관계상 현용단계의 기록관리는 업무와의 친연성이 부재한 생산 이후 아카이브로 이관하기 전까지의 분업화된 수동적인 통제작업으로 이루어져왔다(An Xiaomi 2003, 27). 하지만 컨티뉴엄에서는 위와 같은 가치의 양분화된 시각을 거부한다. 기록이 지닌 소위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사실상 2차적 가치는 현용단계에서의 활용 후 생각해 볼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Flynn 2001, 84). 대신 우선적으로 업무행위의 증거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증거의 생산을 담보케 한다. 여기서 업무행위를 투영한 증거로서의 기록은 실제 업무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관계상, 기록을 획득하는 기록관리를 업무와 통합시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업무 프로세스와 기록관리를 통합시킨 가운데 업무와의 친연성에 기반을 둔 현용기록관리의 강화를 도출시키게 된다.

4. 결론

Bearman과 Hedstrom은 전자기록 환경 하에 전통적인 기록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가늠케 해준다. David Osborne과 Ted Gaebler가 제시한 행정학 영역의 '노젓기(rowing)'와 '방향잡기(steering)' 이론을 차용하여, 향후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방향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록이 생산된 이후 주어진 결과를 사후적으로 관리해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젓기와 같은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생산자 및 이용자 스스로 업무행위를 정확히 다큐멘테이션하고 이를 실질적인 필요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향잡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Bearman, Hedstrom 1993, 82-98). 이러한 기록관리의 방향에서는 기록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조직의 업무행위 및 설명책임, 컴플라이언스, 정보적 필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구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는 곧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 간의 친연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여겨서 기록관리는 물리적 자료를 관리하는 테크닉이 아닌 조직행위의 관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고에서 논의한 전자기록의 증거성 강조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내용-구조-맥락이 분리된 논리

적 실체로서 업무의 내역을 반영한 기록의 확보가 예전의 종이기록 환경처럼 용이하지 않은 관계상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증거의 획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에 담긴 내용에 앞서 맥락이 중시되는 기록관리에서, 이러한 증거의 확보 없이는 이후의 기록관리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의 새로운 방향은 바로 기록의 현용적 활용 측면을 강조한 업무친화적 기록관리라 할 수 있다. 맥락을 지닌 증거의 원천적 확보를 위해 업무와 기록을 연계시키고 또한 업무 행위를 반영한 증거 획득을 위해 업무와 기록관리를 통합시키는 가운데 기록관리 영역은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할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기록관리의 주목적인 업무행위의 정확한 포착은 조직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반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경은 조직이 기능하고 운영되는 외적 내적 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조직은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유훈 1991, 279). 따라서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은 기록물이 생성된 정확한 생산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 순응에 필수적인 기록물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Shepherd & Yeo 2003, 35-41). 이는 곧 조직이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며 영위되기 위해 또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상에 필수적인 기록

물의 획득을 필요로 하게 한다. 따라서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는 예전처럼 업무의 결과로 주어진 이미 생성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면에서 전자기록이 지닌 정보자원으로서의 개념 역시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전자기록 환경에서 그동안 증거의 수호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을 뿐, 전자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속성은 간과해 왔다(Cox 2001, 5). 전자기록 시대의 조직이 영위되는 환경 및 최근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록은 더 이상 업무의 결과로서가 아닌 현재의 정보 자산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Sutcliffe 2003, 53). 이것은 곧 증거성을 지닌 정보로서의 개념 재정립을 의미한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업무의 내역을 고스란히 반영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에 우선점을 두어야 하지만 조직 및 총체적 사회에 대한 증거성을 지닌 본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Cox 2001, 6-7).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역시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권기현. 1999.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패러다임·모형 그리고 개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명훈. 2003a. 공공기록물의 분류 원리: 출처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록보존, 16.
- 김명훈. 2003b. 출처주의와 현대 기록관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김명훈. 2005.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 김익한. 2005. 업무과정에 구축한 기록정보시스템 시론. 기록보존, 18.
- 유훈. 1991. 행정학원론. 제6정판. 서울: 법문사.
- AIIM International Europe, DLM-Forum, 2002. Education, Training & Operation: From the Traditional Archivist to the Information Manager. AIIM Industry White Paper on Records, Document and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for the Public Sector. AIIM International Europe, DLM-Forum.
- An Xiaomi. 2003. "An Integrated Approach to Records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3: 7-8.
- Atherton, Jay. 1985-1986. "From Life Cycle to Continuum: Some Thoughts on the Records Management-Archives Relationship." Archivaria, 21.

- Bailey, Catherine. 1989-1990. "Archival Theory and Electronic Records." *Archivaria*, 29.
- Bearman, David and Hedstrom, Margaret. 1993. "Reinventing Archives for Electronic Records: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Option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rogram Strategies,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 Bearman, David. 1994. *Electronic Evidence: Strategies for Managing Records in Contemporary Organizations*.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 Bearman, David. 1995. "Archival Strategies." *American Archivists*, 58(4).
- Brothman, Brien. 2002. "Afterglow: Conceptions of Records and Evidence in Archival Discourse." *Archival Science*, 2: 3-4.
-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 Cox, Richard J. 2001. *Managing Records as Evidence and Information*, Westport, Conn.: Quorum Books.
- Delmas, Bruno. 2001. "Archival Science Facing the Information Society." *Archival Science*, 1.
- Duffy, Jan. 2001. "Knowledge Management and Its Influence on the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1: 7.
- Duranti, Luciana. 1994.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7(2).
- Duranti, Luciana, Eastwood, Terry and MacNeil, Heather. 2002. "The Concept of Electronic Record".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Electronic Record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Evans, Frank B. 1967.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Variations on a Theme." *American archivists*, 30(1).
- Flynn, Sarah J. A. 2001. "The Records Continuum Model in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for Archival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2(1).
- Hofman, Hans. 1998. "Dealing with Electronic Records: Intellectual Control of Records in the Digital Age." *Janus*, 1998.
- Horsman, Peter. 2000. "Appraisal and Disposal as a Function of Records Management Systems". *Principles of Appraisal and Their Application in*

- Electronic Environment: European Models and Concepts. Arkistolaitos. <<http://www.narcfi/dlm/>>.
- ICA, Committee on Electronic Records, 1996. Guide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from an Archival Perspective(ICA Studies 8). ICA.
- IRMI and ICA, 2005. 전자기록물 관리 . 김명훈 역. 서울: 진리탐구.
- Jenkinson, Hilary. 1922.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oblems of War Archives and Archive Making. Oxford: The Clarendon Press.
- Lybeck, Jari. 2000. "Appraisal 2000: A Project of the Finnish National Archives and Its International Context". Principles of Appraisal and Their Application in Electronic Environment - European Models and Concepts. Arkistolaitos. <<http://www.narcfi/dlm/>>.
- McKemmish, Sue. 1994a. "Are Records Ever Actual?".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cKemmish, Sue and Piggott, Michael ed. Clayton: Ancora Press in association with Australian Archives.
- McKemmish, Sue. 1994b. "Understanding Electronic Recordkeeping Systems: Understanding Ourselves".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Monash Univ.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smckeram.html>>.
- McKemmish, Sue. 1998. "The Smoking Gun: Recordkeeping and Accountability".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Monash Univ.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smoking.html>>.
- McKemmish Sue et al. 1999. "Describing Records in Context in the Continuum: The 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chema." Archivaria, 48.
- McKemmish, Sue. 2001. "Placing Records Continuum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1.
- Menne-Haritz, Angelika. 1994. "Appraisal or Documentation: Can We Appraise Archives by Selecting Content?" American Archivist, 57(2).
- Myburgh, Sue. 2004. "Competitive Intelligence: Bridging Organizational Boundaries."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4: 3-4.
- O'Shea1, Greg. 1997. "Research Issues in Australian Approaches to Policy Development." Journal Archives and

- Museum Informatics, 11: 3-4.
- Pemberton, J. Michael. 2004. "KM & RM: Oil & Wate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4: 5-6.
- Roberts, David. 1998. "The New Australian Records Management Standard". State Records New South Wales.
<<http://www.records.nsw.gov.au/publicsector/rk/sacramento/sacramento.htm>>.
- Schellenberg, T. R. 1965. The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Schellenberg, T. R. 2002. 현대 기록학 개론 . 서울: 진리탐구.
- Schellenberg, T. R. 2005. 「현대 공공기록의 평가. 오향녕 역 기록학의 평가론 . 서울: 진리탐구.
- Sutcliffe, Paul. 2003. "Building the Corporate Memory in the E-environment." Records Management Journal, 13(2).
- Taylor, Hugh A. 1983. "Information Ecology and the Archives of the 1980s." Archivaria, 18.
- Upward, Frank.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Monash Univ.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fupp1.html>>.
- Wang Rong-sheng & Wang Yu-sheng. 1996. "Archives are Purposive Action of the Subject-of-act: On the Double Quality of Archives." Janus, 1996.
- Yusof, Zawiyah and Chell, Rebert. 2002. "Towards a Theoretical Construct for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Journal, 12(2).